



※ 범위 분석 및 총평

1. 출제 영역별 문항 수

대단원 분류	문항수	출제 영역	
이론 문법	8	음운론	음운변동(2)
		형태론	형태소(1) 단어의 형성(1) 품사(1)
		문장론	문장성분(1) 높임법(1) 사동 피동(1)
비문학	2	독해(1) 단어 넣기(1)	
문학	6	고전 문학	운문(2) 산문(2)
		현대 문학	현대 시(1)
		문학 지식	시대적 배경(1)
어휘	4	한자와 한문	한자성어(1) 한문(1)
		일반 어휘	의미관계(1) 역사적 변화(1)

2. 총평

이번 서울시 추가 채용 7급 국어는 이론 문법(8문항)과 문학(6문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어문규정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음운의 변동 문제와 표준발음법이 관련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어문규정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작년(2018년) 6월 서울시 7급 시험에서 어문규정 문제가 12문항 출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문제의 발문은 흔히 사용하는 개념어를 다른 말로 풀어서 나타내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나타낸 것인데, 어차피 묻는 것은 동일하더라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질문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 무엇을 묻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어 체감 난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외에 고전 운문 중 하나로 두보의 <곡강>을 제시한 문제의 경우는, <곡강>이라는 작품이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어를 공부하면서 배경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작품임을 이용하여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이 눈에 띄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작품들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한문과 속담의 연결 문제의 경우는 2017년 국가직 7급 추가 채용 문제로 한 번 출제된 적이 있는 것을 다시 출제하였다는 것도 눈에 띈다.

올해 서울시 첫 시험의 뚜껑을 열었더니, 결국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범위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왔다. 다만, 문제의 표현 방식이 조금 새롭고, 관련 지식을 통해 파악해야 할 문제가 섞여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역시 앞으로의 학습 방향도 늘 강조해 온 것처럼 전범위에 걸친 성실한 시간 투자, 그리고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논리적인 학습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1. <보기>는 두보의 시 「곡강(曲江)」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기>

조정에서 돌아오면 봄옷을 저당 잡고,
매일 강어귀에서 만취되어 돌아오네.
술빛은 늘 가는 곳마다 있건만,
인생 ()은 예로부터 드물구나.
꽃 속으로 날아드는 나비는 그윽하고,
물 위로 콩지를 달을 듯 나는 잠자리는 유유하네.
내 전하고픈 말은 풍광과 함께 흐르노니,
잠시나마 서로 즐기고 부디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라네.

- ① 오십 ② 육십 ③ 칠십 ④ 팔십

1. 정답: 3번

출제 범위: 고전 운문 + 어휘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두보의 <곡강>은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어를 공부할 때, “人生七十古來稀(인생 칠십은 예로부터 드물다)”에서 70세를 나타내는 말 ‘古稀(고희)’가 유래했음을 배울 때 언급되는 작품이다. 제시문에서는 작품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해당 나이를 괄호로 처리하여 문제를 냈으므로 나이에 관한 한자어를 공부한 수험생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제시된 한시의 원문>

朝回日日典春衣 (조회일일전춘의)
每日江頭盡醉歸 (매일강두진취귀)
酒債尋常行處有 (주채심상항처유)
人生七十古來稀 (인생칠십고래희)
穿花蛺蝶深深見 (천화협접심심견)
點水蜻蜓款款飛 (점수청정관관비)
傳語風光共流轉 (전어풍광공류전)
暫時相賞莫相違 (잠시상상막상위)



2.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 독립된 존재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다.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체이원론이며, 이 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통상 데카르트가 언급된다. 기계와 이성이 서로를 배제한다는 생각은 이원론적 사고의 한 유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두뇌를 포함한 몸은 그것의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마음은 물리적 속성을 결여한 비물리적 실체이다. 이성을 가지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실체이다.

- ① 이원론은 물리적 실체와 마음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겠군.
- ② 이원론은 몸이 비물리적 실체일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이원론은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 ④ 이원론은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보겠군.

2. 정답: 3번

출제 범위: 비문학 독해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제시문의 앞부분에서 “전통적인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 (중략)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체이원론이며”라고 하였으므로 이원론은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오답 해설>

- ①, ④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물리적 실체인 몸과 비물리적 실체인 마음은 서로 분리가 가능하며 따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몸은 물리적 속성을 가졌고, 마음은 비물리적 실체라고 하였다.

3. 주어진 단어를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을 때 그 요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파김치 ② 짜임새
- ③ 주름살 ④ 지름길

3. 정답: 2번

출제 범위: 형태론 - 형태소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의미를 가진 요소 중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은 형태소이다. 결국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묻는 문제이다.

② ‘짜임새’는 ‘짜(어근)/이(접사)/ㅁ(접사)/새(접사)’로 이루어져 형태소가 4개이다.

<오답 해설>

- ① 파(어근)/김치(어근)
- ③ 주름(어근)/살(어근)
- ④ 지르(어근)/ㅁ(접사)/길(어근)

4.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 ① 첫술에 배부르랴.
- ② 내 코가 석 자다.
-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
- ④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

4. 정답: 4번

출제 범위: 한문 + 속담

난이도: 중

<정답 해설>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욕속칙부달, 견소리즉대사불성)’은 ‘빠르고자 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얻으려 하면 곧 큰일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빠르고 쉽게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를 수 없으니 그 순서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와 통한다.

<오답 해설>

- ① 첫술에 배부르랴: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만족할 수는 없다.
- ② 내 코가 석 자다: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
-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

5. 효(孝)와 관계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 ① 斑衣之戲 ② 斷機之戒
- ③ 陸績懷橘 ④ 望雲之情

5. 정답: 2번

출제 범위: 어휘 - 한자어

난이도: 중

<정답 해설>

斷機之戒(단기지계):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음을 경계한 말이다. 맹자가 공부하는 도중에 집에 돌아오자, 그의 어머니가 짜던 베를 끊어 그를 훈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오답 해설>

- ① 斑衣之戲(반의지희): 늙어서 효도함을 이르는 말이다. 중국 초나라의 노래자가 일흔 살에 늙은 부모님을 위로하려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어린이처럼 기어 다녀 보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③ 陸績懷橘(육적회귤): 육적이 귤을 품에 품었다는 뜻으로, 지극한 효성을 이르는 말이다. 육적이 6살 때 원술의 집에 찾아갔다가 귤 대접을 받았는데 그것을 먹는 척하며 품에 숨겼다가 들통이 나자, 숨긴 연유를 묻는 원술에게 어머니가 귤을 좋아하셔서 가져다 드리기 위해 숨겼다는 답변을 하여 감동하게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④ 望雲之情(망운지정):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6. 의미관계와 단어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의 관계(synonymy) - 근심:시름
- ② 반의 관계(antonymy) - 불록:오목
- ③ 상하 관계(hyponymy) - 할아버지:손자
- ④ 부분 관계(meronymy) - 코:얼굴

6. 정답: 3번

출제 범위: 어휘 - 의미관계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상하 관계(hyponymy)’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관계에 있을 때를 가리킨다. 즉, 상의어인 일반적 범위의 단어와 하의어인 구체적 단어가 연결된 관계를 뜻하는데, ‘과일:자두’, ‘사람:여자’ 등이 그 예이다. ‘할아버지:손자’는 상대 관계로 ‘손자’가 존재할 때 ‘할아버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할아버지’가 존재해야만 ‘손자’가 있을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동의 관계(synonymy)
 - 근심: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 시름: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고 항상 남아 있는 근심과 걱정.
- ② 반의 관계(antonymy)
 - 불록: 물체의 거죽이 조금 도드라지거나 썩 내밀린 모양.
 - 오목: 가운데가 동그스름하게 푹 패거나 들어가 있는 모양.
- ④ 부분 관계(meronymy)
 - 코: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 (부분)
 - 얼굴: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전체)

7. <보기>의 음운 변동 사례 중 옳은 것은?

<보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축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2개 증가하였다.

- ① ㉠ ② ㉡ ③ ④ ㉣

7. 정답: 1번

출제 범위: 음운론 - 음운 변동

난이도: 중

<정답 해설>

㉠ 집일[짐닐]: ‘ㄴ’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 [짐닐]이 되고, 자음동화(교체)가 일어나 [짐닐]이 되었다.

<오답 해설>

㉡ 닭만[당만]: ‘닭’의 받침 ‘ㄹ’이 대표음 ‘ㄱ’으로 바뀌면서 탈락(자음군단순화)이 일어나 [닥만]이 되면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고, 자음동화(교체)가 일어나 [당만]이 되었다. 즉, 탈락과 교체가 일어났다.

㉢ 뜻하다[뜨타다]: ‘뜻’의 받침 ‘ㅌ’이 교체에 의해 대표음 [ㄷ]이 되어 [뜨하다]가 되고, 받침 ‘ㄷ’과 두 번째 음절 ‘하’의 ‘ㅎ’이 축약하여 [뜨타다]가 되면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다. 즉, 교체와 축약이 일어났다.

㉣ 말는[만는]: 받침 ‘ㄷ’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만는]으로 교체가 일어나고, [만는]은 다시 자음동화(교체)가 일어나 [만는]이 되므로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 변화는 없다.

8.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①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다.
- ② 그 학생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더라.
- ③ 바로 옆집에 삼촌이 사신다.
- ④ 5월에 예쁜 꽃을 보러 가자.

8. 정답: 2번

출제 범위: 문장론 - 문장성분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문장성분은 먼저 서술어를 찾고, 서술어를 중심으로 주성분을 분석한 뒤에 부속성분과 독립성분을 구분하면 된다. 이때 각 성분은 해석을 통해 찾으면 쉽다.

② 서술어 ‘되었더라’는 보어를 가지므로 이 문장에서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두 개(주어와 보어)임을 생각해야 한다.



누가 '그 학생이' 무엇이 '사람이' 되었으므로 주어와 보어가 가려진다. 여기서 체언인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어 '새'를 '아주'가 다시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관형어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어밖에 없으므로 '아주'는 부사어이다.

<오답 해설>

- ① 서술어 '기억난다'의 주어(누가/무엇이)는 '나는'과 '말씀이'이다. 밑줄 친 '어머니의'는 주어인 체언 '말씀'을 수식하며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였으므로 관형어이다.
- ③ 서술어 '사신다'와 주어 '삼촌이'를 제외하면 모두 부속성분인데, '바로'는 체언 '옆집'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어가 된다.
- ④ 서술어 '보러 가자'의 주어는 생략되었고, 목적어(무엇을)는 '꽃을'이며 이것들을 제외하면 모두 부속성분이다. '5월에'는 때를 나타내므로 부사어이고, '예쁜'은 체언 '꽃'을 수식하므로 관형어이다.

체, +객체, +상대)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

- ③ 조사 '께서'와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주체높임을 확인할 수 있고, 종결어미 '-습니다'는 상대높임의 합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주체, -객체, +상대)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
- ④ 조사 '께서'와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주체높임을 확인할 수 있고, 조사 '께'와 서술어 '드리셨습니다'를 통해 객체높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결어미 '-습니다'는 상대높임의 합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주체, +객체, +상대)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

9. <보기>를 참고하여 문장에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예)와 같이 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와 '-'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영수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 ①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
(+주체, -객체, -상대)
- ②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
(-주체, +객체, +상대)
- ③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 ④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9. 정답: 1번

출제 범위: 문장론 - 높임법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① 조사 '께서'와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주체높임을 확인할 수 있고, 종결어미 '-다'는 상대높임의 해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주체, -객체, +상대)로 표시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조사 '께'와 서술어 '드렸다'를 통해 객체높임을 확인할 수 있고, 종결어미 '-다'는 상대높임의 해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주

10. <보기>의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가)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나) 생사의 길은 /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가느냐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여기 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서도 /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 아으, 미타찰(彌陀刹)에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리.

(다)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라)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한 님
추풍(秋風) 낙엽(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 ① (가)-(다)-(나)-(라)
- ② (가)-(다)-(라)-(나)
- ③ (다)-(가)-(나)-(라)
- ④ (다)-(나)-(가)-(라)

10. 정답: 4번

출제 범위: 고전 문학 - 운문

난이도: 상

<정답 해설>

(가)는 고려시대 정지상의 한시 <송인>이며, (나)는 10구체 향가인 월명사의 <제망매가>이다. (다)는 고대가요인,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이며 (라)는 조선시대 기생 계랑의 시조이다. 따라서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다)-(나)-(가)-(라)이다.

※ 현대어 풀이

(가) 정지상 <송인>



雨歇長堤草色多(우혈장제초색다)
 비 갠 긴 독에 풀빛이 푸르네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남포에서 임 보내고 슬픈 노래 부르네.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진)
 대동강 물은 언제 다 마를까?
 別淚年年添綠波(별루년년첨록파)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 주제: 벗과의 석별의 정

(나) 월명사 <제망매가>

삶과 죽음의 길은 / 이승에 있으니 두려워하고 / 나(죽은 누이)
 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가느냐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여기 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 한 가지(같은 부모)에 나고
 서도 /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 아오, 미타찰(극락세계)에서 [누
 이를]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리.

•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다) 유리왕 <황조가>

翩翩黃鳥(편편황조) 펄펄 나는 피꼬리는
 雌雄相依(자웅상의) 암수가 서로 정다운데
 念我之獨(념아지독) 외로운 이 내 몸은
 誰其與歸(수기여귀) 뉘와 함께 돌아갈까

• 주제: 임과 이별한 슬픔

(라) 배꽃이 비처럼 질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가을바람에 잎 질 때 저도 날 생각하는가
 머나먼 거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② (ㄷ)는 국어에 ‘ㄴ’과 ‘ㄱ’이 연속될 때 ‘ㄱ’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어미 ‘-고’는 [꼬]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③ (ㄷ)는 국어에 ‘ㅂ’과 ‘은’이 연속될 때 ‘븐’이 아니라 [운]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어미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④ (ㄷ)는 국어에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규칙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11. 정답: 1번

출제 범위: 음운론 - 음운의 변동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① (ㄷ)는 ‘ㄹ’ 탈락 규칙 활용에 대한 예이며, 어간의 ‘ㄹ’은 어미 ‘오, ㄴ, 스, ㅂ’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한다. 따라서 ‘ㄹ’과 ‘ㄴ’이 연속될 때 예외 없이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이 탈락하는 것은 자동적 교체가 맞다.

<오답 해설>

- ② 국어에서 ‘ㄴ’과 ‘ㄱ’이 연속될 때 ‘ㄱ’이 꼭 경음으로 발음되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예로 제시된 ‘안고’의 경우는 [안:꼬]가 되므로 경음으로 발음되는 사례에 해당하지만, ‘안기다’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안기다]로 발음해야 한다(표준발음법 24항). 따라서 ‘ㄴ’ 뒤에 오는 ‘ㄱ’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에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비자동적 교체이다.
- ③ 어간의 받침 ‘ㅂ’이 모음어미와 만나면 ‘우’로 교체되는 것은 예외가 존재하는 불규칙 활용이다. ‘아름답+은’의 경우 [아름다븐 → 아름답다운]으로 발음되지만, ‘잡+은’의 경우는 그대로 [자븐]으로 발음되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 ④ ‘먹는’처럼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어 [명는]이 되는 것은 자음동화이며, 이것은 예외가 없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11.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형태소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형태소의 교체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자동적 교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체를 말하며,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교체를 말한다.

- (가) 알 -:알+는 → [아:는]
- (나) 안-: 안+고 → [안:꼬]
- (다) 아름답-: 아름답+은 → [아름다운]
- (라) 먹 -:먹+는 → [명는]

① (가)는 국어에 ‘ㄹ’과 ‘ㄴ’이 연속될 때 ‘ㄹㄴ’이 함께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이 탈락하는 자



12. <보기>에서 주된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보기>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① 사소함 ② 괴로움 ③ 기다림 ④ 생각함

12. 정답: 1번
출제 범위: 현대 문학 - 시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제시된 작품은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이다. 1연에서 화자는 '그대'를 향해 자신이 오랫동안 품어 온 마음을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이라 표현하였는데, 오랫동안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라면 아주 깊고 진심어린 것일 텐데 그것을 사소하다고 하였으므로 반어법이 사용된 것이다. 반어법은 강조의 표현이므로 결국 화자는 '그대'를 향한 자신의 마음(정서)이 아주 깊고 진실함을 강조하기 위해 반대로 '사소함'이라는 시어에 담아 표현한 것이다.

• 주제: 이를 수 없는 사랑의 슬픔을 기다림으로 승화하는 자세

13. <보기>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작품은?

<보기>

하꼬방 유리 딱지에 애새끼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 ① 김승옥의 『무진기행』
- ②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 ③ 이문구의 『우리 동네 김씨』
- ④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13. 정답: 4번
출제 범위: 문학 지식-현대 문학(시+소설)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 찾기 문제는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이미 출제했던 문제이다.
 제시된 작품은 구상 시인의 <초토의 시>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현실 속에서도 개나리는 피고 아이들은 해맑게 웃는다는 것을 통해 절망 속에 피어나는 희망을 노래한 시이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므로 소설도 한국전쟁이 배경인 것은 찾아보면 된다.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청년들의 정신적 피해를 다룬 작품이므로 답이 된다.

<오답 해설>

- ① 김승옥의 『무진기행』: 1960년대 배경
- ②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1970년대 배경
- ③ 이문구의 『우리 동네 김씨』: 1980년대 배경

14.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

- ① 손쉽다 ② 맛나다
- ③ 시름없다 ④ 남다르다

14. 정답: 4번
출제 범위: 형태론 - 단어의 형성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어휘 형성'은 단어의 짜임새 즉, 단일어와 복합어 등을 묻는 것이다.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명사+용언'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이 중 ④ '남다르다'는 '부사어+서술어(남과 다르다)'의 구조를 갖고, 나머지는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갖는다.

<오답 해설>

- ① 손/쉽다: '명사+용언'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어+서술어(손이 쉽다)'의 구조를 갖는다.
- ② 맛/나다: '명사+용언'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어+서술어(맛이 나다)'의 구조를 갖는다.
 ('맛나다'를 파생어로 보는 것은 아래의 내용 참고)
- ③ 시름/없다: '명사+용언'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어+서술어(시름이 없다)'의 구조를 갖는다.



※ ‘맛나다’의 ‘나다’

- 표준국어대사전: ‘맛나다’를 접사 ‘-나다’가 결합한 파생어로 등재.
 - 고려대한국어사전: 접사 ‘-나다’도 있지만, ‘맛나다’의 ‘나다’는 용언으로 보아 합성어로 등재.
- ⇒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의 구조를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모범 답안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접사 ‘-나다’가 ‘그런 성질이 있음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임을 고려하면 ‘맛나다’가 ‘맛의 성질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는데 ‘맛이 좋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맛나다’를 접사 ‘-나다’가 결합한 말로 보는 것은 어색하다. 따라서 ‘맛나다’를 접사 ‘-나다’의 용례로 올린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많은 오류 중 하나라고 판단되며, 이 문제의 정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확률이 높다.

1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현대어 해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자네 상해 ㉠날드려 날오디 돌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흠씩 죽자
 하시더니 엇디하야 나를 두고 자네 몬져 가시는 날하고 조식
 하며 뉘 괴걸하야 엇디하야 살라 하야 다 더디고 자네 몬져 가시
 는고 자네 날 향히 맛으물 엇디 가지며 나는 자네 ㉡향히 맛으물
 엇디 가지던고 미양 자내드려 내 날오디 흔디 누어셔 이 보소 남
 도 우리 7티 서르 에엿싸 녀겨 스랑하리 남도 우리 7튼가 하야
 자내드려 니르더니 엇디 그런 이를 싱각디 ㉢아녀 나를 버리고
 몬져 가시논고 자네 ㉣여히고 아무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네
 흔디 가고져 하니 날 드려 가소

- ① ㉠ 나를 따라서 ② ㉡ 향하여
- ③ ㉢ 아니하여 ④ ㉣ 여의고

15.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
-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
- ③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15. 정답: 3번

출제 범위: 형태론 - 품사(조사)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성격’은 곧 ‘종류’를 묻는 것이므로 조사의 종류를 구분하면 된다.

③ ‘수학과 영어’는 ‘수학 그리고 영어’이므로 ‘과’는 ‘and’의 의미로 쓰이는 접속 조사이다. 나머지는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뜬구름’은 ‘인생’과 비교 혹은 비유되는 대상(부사어)이므로 ‘과’는 부사격조사이다.

② ‘영수하고’는 ‘영수와’로 바꿀 수 있으므로 ‘하고’가 ‘와’의 역할을 하는 조사임을 알 수 있고, 친하게 지내는 ‘상대’를 나타내는 말은 부사어이므로 ‘하고’는 부사격 조사가 된다.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상대방이 되므로, ‘상대방’을 나타내는 말은 부사어이고 조사 ‘와’는 부사격조사이다.

16. 정답: 1번

출제 범위: 고전 산문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제시된 글은 이응태묘에서 출토된 ‘원이엄마 한글편지’이다. 남편을 ‘자네’라고 칭하였으며,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내의 마음이 구구절절이 적혀 있다.

㉠ ‘날드려’는 ‘나에게’로 해석해야 한다.

※ 현대어 풀이

자네(당신이) 늘 ㉠나에게 말하기를 돌이 머리가 하얘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네(당신) 먼저 가시
 는가. 나하고 자식은 누구를 의지하여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자네(당신) 먼저 가시는가. 자네는 날 향해 마음을 어떻게 가졌고
 나는 자네를 ㉡향해 마음을 어떻게 가졌던가. 항상 자네에게 내가
 말하기를 함께 누워서 이 보소 남도 우리 같이 서로 어여빠 여기
 고 사랑할까. 남도 우리 같을까 하며 자네에게 말했는데 어찌 그
 런 일은 생각지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 자네를 ㉣여
 의고 아무래도 내가 살 수가 없으니 빨리 당신에게 가고자 하니
 나를 데려가소.



17. <보기>의 ㉠~㉣에 들어가기에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보기>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다. (㉠)도 사건의 서술이지만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스토리이지만, ‘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는 (㉡)이다. 시간적 순서는 마찬가지로이지만 인과의 감각이 첨가된다. 또한 ‘왕비가 죽었다. 그러나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비를 간직한 (㉢)이며, 고도의 전개가 가능한 형식이다. 그것은 시간의 맥락을 끊고 한계가 허락하는 한 스토리에서 비약시키고 있다. 왕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만약 그것이 스토리가 될 경우엔 우리는 (㉣)하고 물을 것이며, (㉡)의 경우엔 (㉢)하고 물을 것이다.

- | | | |
|-------------|--------|---------|
| ㉠ | ㉡ | ㉢ |
| ① 플롯(plot) | 왜? | 그 다음 엔? |
| ② 플롯(plot) | 그 다음엔? | 왜? |
| ③ 테마(theme) | 언제? | 왜? |
| ④ 테마(theme) | 그 다음엔? | 왜? |

17. 정답: 2번
출제 범위: 독해
난이도: 상
<정답 해설>
 ‘플롯(plot)’은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거나 서술하는 일을 가리키고, ‘테마(theme)’는 창작이나 논의의 중심 과제나 주된 내용, 즉 주제를 가리킨다. 이 용어들을 알아야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다.
 앞부분을 정리해서 보면 ‘스토리는 시간 순서의 배열이지만 인과 관계에 역점을 둔 것은 (㉠)이다.’인데,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은 배열과 관련된 글의 구성(플롯)이지 테마(주제)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에는 ‘구성’이 들어가야 한다.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스토리가 될 경우엔 우리는 (㉣)하고 물을 것이며’에서 ‘스토리’는 (글의 앞부분을 참고하면) ‘시간 순서의 배열’이므로 ㉣에는 시간에 따라 ‘그 다음엔?’이려고 묻는 것이 어울린다.
 또 마지막 문장에서 (㉡ 구성)의 경우엔 (㉢)하고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 구성은 글의 인과적 배열이므로 인과에 따라 ‘왜?’라고 묻는 것이 어울린다. 따라서 ㉢에는 ‘왜?’가 들어가야 한다.

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 열 그릇이나 펜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재단(裁斷)에 능소능대(能小能大)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 세누비 미누비 저른 솔 긴 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이 자혀 내고 교두 각시 버혀 낸다 하나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 공이라 자랑하나뇨.”

- ① 서술자는 ‘세요 각시’, 즉 ‘바늘’이다.
- ② 자기 자랑을 하기에 앞서 타인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
- ③ ‘능소능대(能小能大)’는 몸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척 부인’과 ‘교두 각시’는 각각 ‘자’와 ‘인두’를 가리킨다.

18. 정답: 1번
출제 범위: 고전문학 - 고전수필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제시된 작품은 조선 후기 3대 여류 수필에 해당하는 <규중칠우쟁론기>이다. 여인의 방에 있는 바느질 도구 7가지를 의인화하여 서로 자신이 바느질의 공이 큼을 주장하는(공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맨 앞에서 ‘양우(두 친구)의 말이 불가하다(잘못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서술자가 말하는 양우가 누구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 “척 부인이 자혀(재어) 내고 교두 각시 버혀(베어) 낸다 하나 내(가)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이라고 하였으므로 양우는 치수를 재는 척부인(자)과 옷감을 베어 내는 교두 각시(가위)를 말한다. 또 말하는 이(서술자)에 대한 정보는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작의(옷 짓기)할 때 “나의 날래고 빠름(나는 듯이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라고 하였으므로 옷을 뜨고 박는 일은 하는 존재, 바로 바늘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바늘은 ‘세요각시’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오답 해설>
 ② 자신의 공이 가장 크며 자신이 없으면 바느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③ ‘능소능대(能小能大)’는 모든 일에 두루 능함을 의미한다.
 ④ ‘척 부인’과 ‘교두 각시’는 각각 자혀(재어) 내고 버혀(베어) 내는 역할을 하므로 ‘자’와 ‘가위’를 가리킨다.



19.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주동문과 사동문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이다. 다음 중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내가 책을 읽었다.
 (나)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다) 우리가 산을 뽐니다.
 (라)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 ①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
- ②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
- ③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부사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이다.
- ④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19. 정답: 2번
출제 범위: 문장론 - 사동 피동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나)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사동문)
 ⇨ '읽다' 행위의 주체는 부사어인 '나'이다. 사동문의 기본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찌하다' 혹은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인데, '읽히다'의 경우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읽히다'로 써야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가 되고, 행위의 주체인 부사어는 필수부사어로 문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성분이 된다.
 (라)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피동문)
 ⇨ 보는 행위의 주체는 부사어 '우리'이다. 피동문의 기본은 '누가 누구에게 어찌되다' 혹은 '무엇이 어찌되다'인데, '보이다'는 '무엇이 보이다'의 구조로 쓰이므로 한 자리 서술어가 되고 행위의 주체인 부사어는 없어도 관계없다. 따라서 피동문은 행위의 주체가 필수적으로 제시되지 않아도 된다.
<오답 해설>
 ① 사동사 '읽히다'와 피동사 '보이다'는 모두 접사가 포함된 파생어가 맞다.
 ③ 사동문인 (나)의 부사어 '나에게'는 주동문인 (가)의 주어 '내가'가 되며, 피동문인 (라)의 부사어 '우리에게'는 능동문인 (다)의 주어 '우리가'가 된다.
 ④ (가) 내가 책을 읽었다.(주동문: 두 자리 서술어)
 (나)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사동문: 세 자리 서술어)
 (다) 우리가 산을 뽐니다.(능동문: 두 자리 서술어)
 (라)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피동문: 한 자리 서술어)

20. <보기>의 어휘들은 통시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 준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놈: '사람평칭' → '남자의 비칭'
 (나) 겨레: '종친, 친척' → '민족, 동족'
 (다) 아침밥 > 아침
 (라) 맞비 > 장맛비

- ① (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 ② (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예이다.
- ③ (다)는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예이다.
- ④ (라)는 형태의 일부가 덧붙여진 후에도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이다.

20. 정답: 4번
출제 범위: 어휘 - 의미 변화 양상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맞비'는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 또는 그 비를 가리키는 말이고, '장맛비'는 장마 때에 오는 비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형태의 일부가 덧붙여진 후에 전체 의미 중 일부가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났다.
<오답 해설>
 ① '놈'은 '일반 남자'를 가리키는 말에서 '일부 남자를 비하'하는 말로 그 의미의 범위가 줄었으므로 축소이다.
 ② '겨레'는 '친족'에서 '민족 전체'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③ '아침밥'은 '밥'이 생략되어 '아침'이 되어도 그대로 '아침밥'의 의미로 쓰이므로, 일부분이 생략된 후에도 남아 있는 부분에 생략되기 전의 전체 의미가 잔류하는 것이 맞다.